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영화 '1987'과 국정원 · 검찰 · 경찰 개혁

과거는 지나간 시간, 지나간 일이다. 지나간 시간과 일, 과거를 생각하거나 들추는 것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과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매몰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산물이다. 과거를 잘 살피고 성찰하고 잘못을 가려서 교훈으로 삼아야 현재와 미래를 잘 살도 설계할 수가 있다.

과거는 역사다. 그래서 역사를 잘 배우고 알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영화 '1987'이 6백만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가족과 함께 영화 '1987'을 보았다. 눈물이 났다. 나도 1987년 6월 항쟁의 많은 현장에서 최루탄에 쫓기면서 마셨다. 경찰청 간부들도 단체로 보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한열 역을 했던 배우 강동원 등과 함께 보았다. 문 대통령은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영화 대사 중의 하나인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는 가족 등 주위의 말이다. 영화(영화 속)의 연세대 여학생)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칠 때 세상이 바뀐다"고 소감을 말했다.

영화 '1987'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과 1987년 6월, 연세대 경영학과 2

학년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다룬 영화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 88올림픽을 관계대면서 대통령 국민 직선제를 할 수가 없고 대통령 간접선거 제도의 협형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4·13호헌 조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시위 도중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박종철 군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경찰청) 대공본실에서 불고문으로 죽었는데, 안전기획부 · 검찰 · 경찰이 공모하여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조사 도중에 탄자를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하는 등 은폐 조작하였다.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교도관, 이부영 동아일보 해직기자, 재야 인사 김경남씨,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승훈 대표 신부, 함세웅 신부 등 많은 민주투사들의 협력이 있었다.

이한열 군은 6월 9일 연세대 정문에서 시위 도중에 경찰이 직격으로 쏜 최루탄을 뒷머리에 맞고 쓰러져 27일 간 뇌사(腦死) 상태에 있다가 7월 5일 세상을 떠났다. 원래 최루탄은 인명 살상이 목적이 아니므로 허공으로 45도 각도로 쏘아야 하는데, 시위대를 향하여 직격으로 무차별 발사한 것이다. 두 학생의 피가 6월 민주

항쟁을 촉발시켰고, 6월 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선언을 이끌어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공짜로 저절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민주열사와 민주투사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고귀한 열매이다.

지난 14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권력의 충견(忠犬)이 되어서 권력 남용과 오용, 인권 침해와 정치 개입, 국민 감시와 탄압에 앞장 선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개혁을 발표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국민을 탄압하고 불법을 자행하는데 써온 권력기관의 개혁은 촛불민심의 간절함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권을 빼앗아서 경찰로 넘기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명한다. 국정원은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은 경찰로, 고위공직자 수사권은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하여 넘기고 기소권(起訴權)과 영장 집행권을 행사한다. 경찰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처로 나누고, 특히 지지경찰제를 정착시켜서 시·도지사의 관할 하에 둔다.

국정원을 어떻게 비저고리 만들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검찰은

육을 먹어가면서 적폐청산의 총대를 댔는데 토사구팽(兇死何處)되는 것이냐. 경찰의 수준이 아직 낮아서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가 많은데 공룡경찰이 되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등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일리도 있는 말이다. 그러한 문제점이 우려는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권과의 절연(絶緣)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권력기관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고치고 혁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큰 문제는 잘못된 제도, 관행을 고치지 않고 방치 또는 묵인한다면 진짜 직무유기, 범죄가 될 수가 있다. 그러한 불의와 불법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정의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국민들이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해 준 것이다. 권력의 충견이 되어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기관들은 지금이라도 대오(大悟) 각성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었다. 국민들이 깨어나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 군림(君臨)의 시대가 아니고, 섬김의 시대다. 일방적 통치의 시대가 아니고, 쌍방향 소통의 시대다. 잘못된 관행과 법제도는 과감히 개혁해야 하는 혁신의 시대다. 혁신도 완성된 혁신은 없다. 환경이 변화되어 문제점이 나타나면 혁신도 끝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시행착오와 혁신이 쌓이고 거듭하면서 인간과 역사는 발전한다. 우리 국민들은 더욱 깨어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社說

영유아 영어 선행교육 막아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3개 시민단체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뿐 아니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선행교육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치원 · 어린이집만 규제하면 영어학원 이용 증가 등 사교육 풍선효과와 유아 영어 양극화로 국민 불만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프로그램 규제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하는 영어수업은 선행학습을 안 했다고 전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 이를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초등 영어수업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학부모 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교육부에 유치원 · 어린이집 방과 후 영

어수업 금지를 연기하지는 의견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뿐 아니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선행교육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고 제안했다.

최근 정부가 유치원 ·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온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폐지 반대 청원'에는 10일 오전 현재 7천300여명이 동의했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가 사교육 시장만 팽창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현재 수업이 '놀이 방식'으로 이뤄져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정부가 괜히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대상 영어교육이 우리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指薪修祐

指薪修祐

▷ 뜻: 불타는 나무와 같이 정열로 도리를 닦으면 복을 얻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 제대로 알고 예방하세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독감은 상부 호흡기계(코, 목)나 하부 호흡기계(폐)를 침범하며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전신 쇠약감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동반한다. 독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발생하며, 계절 구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매년 겨울에 소규모로 유행되고 있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노인이나 소아,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합병증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중요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 한정된 발병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유행하게 되면 짧은 시간도 많이 사망할 수 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원인균

과 병의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감기와는 구별하고 있다. 즉, 감기와 독감은 전혀 다른 병이다. 독감 바이러스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B, C형 세가지가 존재하지만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이다. B형은 증상이 약하고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한다. 독감을 감기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독감은 고열이 갑자기 생기고, 전신증상 심한 피로감이 오래간다는 점에서 감기와 다르다. 감기는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며, 목이 아픈 증상이 대부분이다. 독감은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제가 있는데 증상 발생 48시간 안에 사용해야만 효과가 있다. 어린 아이나 노인은 독감이 심하면 위독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유행성/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湖南新聞 本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함께 가는 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